

# 농진청, 치매 위험 낮추는 유산균 발견

### 토종 항산화 유산균, 알츠하이머 주요 원인 '베타아밀로이드' 뇌 속 침착 억제해... 치매 예방 가능성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발견한 우수 속 항산화 유산균이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 산화환원 활성치의 증가로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견한 '토종 항산화 유산균'은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억제해 키르보르 치매 예방의 가능성을 열었다.

일단, 안전성 논란을 겪은 기존 해외 치료제(美 이두렐름 등)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한 알츠하이머 예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항산화 유산균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우유에서 철 이온 결합능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유산균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 급여해 효과를 구명했다.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아무 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과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선발 유산균, 선발 유산균을 첨가해 만든 유제품을 각각 3개월간 먹인 집단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침착되었고, 선발 유산균과 이를 함유한 유제품을 먹인 집단에서는 플라크 침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선발 유산균을 고농도(균 100억 개/회)로 먹었을 때, 먹이지 않은 집단

보다 최대 41.7%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와 치즈를 급여한 집단도 각각 31.9%와 36.2% 줄어 유제품도 플라크 침착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확인되었다.

농진청 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 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라며 "기술이전을 통해 축산식품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국정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 농어촌공, 100여명 공사 임직원 참여해 의견 교환 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5일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0개 자체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분야별 실무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마련해 분기별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국정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 국정과제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윤·오프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공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창원농 육성 △삼양주권 확보 △스마트팜 인프라 확산 △농촌공간계획 지원 등 농어촌의 핵심 과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병호 사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5일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정과제 추진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롯데백 전주점, 사랑 나눔 배식 봉사활동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5일 전주 완산구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가을 환절기를 맞아 지역 어르신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직원들이 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 및 소외계층 300여 명에게 300만원 후원금을 지원하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다.



강경주 전점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5일 완산구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사랑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다.



중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정부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경영 실천에 나섰다.

# 하림,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MOU

###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으로 업무 시스템 개선 기대

중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정부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스퀘어에서 하림 서블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롯데케미칼 박수성 생산본부장, 이보영택 박춘식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MOU가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 배경과 함께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의 비전을 공유하며 진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 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예측·분석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림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최신 환경관리기법을 지원받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희희)은 지난 23~25일 3일간, 원주소방서 등 6개 기관 합동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 한국식품연구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6개 기관 합동, 지진·폭발·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 훈련 진행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희희)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원주소방서 등 6개 기관 합동 '2023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며, 이번 유관기관 연계 합동훈련은 △한국식품연구원 △완주소방서 △전북도시가스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1일차(23일) 한국식품연구원 본사에서 펼쳐진 복합재난 대응 유관기관 연계 및 통합훈련, 2일차(24일)와 3일차(25일)는 비상소

집 및 자체 팀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상황에 따른 건물 붕괴·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난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발생 지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구조활동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은 신속한 상황 전파·판단 회의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원주소방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했고 육군 9585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시가스는 긴급복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24일 열린 제4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 최우수상에 'SI 자세 측정 서비스 몸짓' 양미지씨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24일 제4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와 공동 주관으로, 도내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아이템 조기 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인큐베이팅(창업보육 및 설립준비)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15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후 최종 5팀을 선발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2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과 컨설팅, 창업피파켓 등 창업 공간 연계를 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양미지씨의 '내 손안에 무용선생님 - SI 자세 측정 서비스 몸짓' (예비·기창업 부문) 아이디어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력과 개발능력, 성장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창업자 우수상을 후원한 (사)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박금옥 회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 창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으로 전북 지역 창업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10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광각

내야